

추문의 데마고기(Demagogy)화, 수사학에서 정치학으로

-송계월의 소문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진선영*

〈차례〉

1. 들어가며 : '사회적 배제' 장치로서의 소문
2. 송계월의 삶과 소문
3. 기생(妓生)과 투사(鬪士) 사이
4. 추문의 데마고기(Demagogy)화, 평론의 정치학
 - 4.1. 익명에서 실명으로, 데마고그(Demagogue)의 책임
 - 4.2.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비판, 저널리즘의 윤리
5.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신여성과 소문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소문에 대항하는 여성주체의 개별적 반응에 집중함으로써 저항적 차이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송계월의 소문 대응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송계월은 개벽사 여기자, 여류문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 이력과 함께 미모의 여기자, 동료 문인과의 연애담, 처녀 출산, 갖가지 억측과 소문에 시달리다 요절한 것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온갖 소문에 시달리면서 자책하고 절망하였다는, 결과론적으로 죽음을 논할 때 송계월이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여기자로서, 여류문인으로서 얼마나 전투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송계월의 삶의 태도를 기저로

* 이화여대 국문학과 강사

소문에 대응하는 양상을 고찰하여 송계월의 삶과 문학을 좀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송계월이 소문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이미 여학교 시절 ‘함경도 기생’이라는 소문에 고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문에 대응하는 송계월의 반박이 과도한 신경과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부터 소급되어야 할 것이다. 송계월은 오랫동안 소문에 노출되어 큰 고통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 소문에 휩싸이자 적극적인 반박과 공격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송계월은 자신과 관련한 소문을 평론의 형태로 저항한다. 소문 생산의 가치, 우열, 선악을 비평의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소문의 반박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넘어 소문의 생산자인 데마고그(Demagogue)와 상업주의적 저널리즘을 비판한다. 이는 송계월이 직업적 경험으로 데마고기(Demagogy)가 제작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자신과 관련한 소문이 개인적 목적과 선동을 위한 데마고기였다는 사실, 데마고기의 생산자를 실명화 하여 공론화된 소문의 재생산을 차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송계월의 정치성이며, 이러한 변전(變轉)을 통해 도덕적 책임의 소재를 전환시킬 수 있었다. 소문의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공세를 벌임과 동시에 소문을 가십이라는 이름으로 잡지에 실은 부르주아 저널리즘을 비판함으로써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과 소문의 생산자에게 저널리즘적 양심과 윤리적 책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소문이 대상자가 아닌 실명의 생산자(저널리즘, 유포자)에게로 되돌아감으로써 송계월은 소문을 수사학이 아닌 정치학으로 쟁점화한 것이다. 이처럼 추문에 대항하는 독특한 대응방식은 송계월의 강렬한 주체성과 저항성, 결벽성을 반증하며 그녀의 삶과 관련하여 작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핵심어: 송계월, 소문, 데마고기, 데마고그, 가십, 황색 저널리즘

1. 들어가며 : ‘사회적 배제’ 장치로서의 소문

신여성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여성을 둘러싼 소문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발화되는 현장이다. 당대의 저널리즘은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포한다. 신여성의 이력과 개인생활을 대중들의 구미에 맞게 제작하였고, 대중들은 매체가 전하는 가십(gossip)을 통하여 신여성의 이미지를 소비하였다. 공론장에 오르게 된 신여성의 소문은 확대 재생산, 변형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형적인 신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하였고 이러한 추문 속에 신여성의 존재론적 역사는 훼손되었다. 이처럼 소문은 당대 신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축으로 작용하였고 신여성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집약하게 되었다.

소문(所聞)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다. 이 간단한 정의에는 소문의 성격이 압축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의 관심과 전달을 촉발할 만큼 공공성과 시의성, 전하는 사람의 익명성 등이 담보되어 있다.¹⁾ 소문이 단순한 풍문(風聞)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강력한 인공물로서 문화적으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시간적 유효성과 함께 그것이 사회적 현실의 구성에 일정 부분 개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을 통해 대중이 상상했던 것의 실재가 구성된다는 사실은 소문의 강력한 힘을 드러낸다.

앞서 살핀 소문의 구성적 힘은 신여성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과 담론적 유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당대 사회에서 신여성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장치로 작동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전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집단이나 개인을 주류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은 주류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다양한 차원의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하며 이러한 불이익은 상당 기간 지속된다. 즉 사회적 배제는 경제

1) 한스 J. 노이바우어, 『소문의 역사 : 역사를 움직인 신과 악마의 속삭임』, 박동자·황승환 옮김, 세종서적, 2001, 13~24쪽.

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온전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²⁾

소문은 포섭의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원리로 작동하였다. 일단 신여성은 소문에 포획되게 되면 ‘발생-유포-재생산’의 과정에 따라 철저히 대상화된다. 결국 소문은 신여성을 둘러싼 근대 여성주의와 가부장제 사회 간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사회적 담론이자 불평등한 성별 권력을 내포했던 정치적 지점이었다.³⁾

그간 신여성과 소문의 관계는 다채롭게 조명되었다.⁴⁾ 나혜석, 김명순, 김원주 등 제1기 여성작가들이 겹겹의 소문으로 재생산되는 과정, 개별 신여성들(윤심덕, 최승희 등)의 소문의 실체, 신여성들의 소문을 소재로 삼아 극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신여성과 관련한 또 하나의 소문을 만들어 내는 남성 문인들의 소설 쓰기 행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소문의 시스템은 보편적 사회 정서에 기대는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했던 당대 남성 권력을 문단장(文壇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젠더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망은 풍속사적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가 소문을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었다.

신여성과 소문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당대의 소문을 현대의 대중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 소문에 대항하는 여성주체의 개별적 양상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신여성들이 소문에 저항하는 방식은 담론적 권력 장치로 신여성을 길들이려 했던 제도에 대항하여 가장 신여성적인 특성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본고는 신여성과 소문의 관계를 살핀 앞선 논문들의 연구적 업적을 인정하며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소문의 사회적 배제에 저항하는 여류문

2) 배미애,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4, 2007, 154쪽.

3) 김연숙, 『여성, 소문으로 말해지다』,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33쪽.

4) 손혜민, 『소문』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신여성’의 기표-나혜석의 단편 『경희』를 중심으로, 『사이』 7, 2009, 141~168쪽.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332쪽.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30, 221~245쪽.

인의 한 양상으로 송계월의 대응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송계월은 제1기 여성작가였던 김명순과 김일엽 이후 작품이 아닌 외모나 사생활(특히 연애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된 대표적인 제2기 여성작가였다. 송계월은 ‘독특한’ 신여성(사회주의 여성운동가/여기자/여류문인)이라는 이유로 짧은 생(23세로 요절) 동안 수많은 소문에 포위된 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소문을 의식하는 자의식 속에서도 소문에 지지 않으려 공적, 사적 생활을 철저히 점검하였고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을 소문에 붙들렸지만 웅크리지 않고 전투적, 문사적으로 저항한 송계월의 소문 대응 방식을 통해 신여성의 주체적 자기 정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송계월의 삶과 소문

최근에 이루어진 송계월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잡지 『신여성』을 살피는 가운데 『신여성』의 복간 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부인기자로 다룬 경우, 여류문인으로서 그녀의 삶과 작품에 집중한 경우, 송계월과 관련한 소문을 다룬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이상경은 개벽사에서 창간한 두 잡지 『부인』과 『신여성』의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부인기자로서 송계월의 활동을 고구한다. 송계월의 개벽사 입사는 편집인 한 명의 추가가 아니라 복간 이후 『신여성』의 변화된 성격을 보여주는 바, 송계월의 활약으로 여성 관련 기획과 문예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전문 여성 필자를 갖게 됨으로써 여성주의적 전문성을 띠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⁵⁾ 김수진의 작업은 이상경의 연구를 좀 더 확대하여 신여성 담론 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잡지 『신여성』을 살피는 가운데 송계월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복간 후 『신여성』에서 송계월

5) 이상경, 『『부인』에서 『신여성』까지』, 『신여성』, 케포이북스, 2009, 3~35쪽.

의 위치는 『신여성』의 발행과 편집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방정환 다음에 자리한다.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하여 입사한 개벽사에서 정치적 신념을 채 이루기도 전에 소문으로 꺾인 인테리 신여성의 요절을 짧은 생애사 중심으로 요약하였다.⁶⁾ 앞선 두 논문은 여성의 직업 생활로서 ‘기자’라는 신분에 집중하여 송계월의 역할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송계월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 의식으로 사회적 쟁점을 살피고 그것을 글쓰기 하였다. 이로써 ‘화초’ 기자가 아닌 직업적 전문성과 사회성을 선보인 새로운 의미의 부인 ‘기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송계월의 삶과 글을 정치하게 살핌으로써 관심을 촉발시킨 박정애의 논문은 송계월 연구의 시원적 성격을 갖는다. 명량하고 열정적인 함경도 여성이 경성에 입성해 겪게 되는 심적, 사회적 갈등을 에세이를 통해 살피고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어 그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문을 통해 살피고 사후 낭만적으로 유통되는 방식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⁷⁾ 박정애의 논문은 송계월 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작가론의 형태를 띠는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소문과 관련한 송계월의 반응을 지나친 신경과민으로 처리한 점은 연구적 아쉬움을 남긴다.

송계월을 당대 문단의 제도적 장치와 연결하여 소문의 메커니즘 속에서 희생된 인물로 살핀 심진경의 논문은 확장된 시각에서 여성문인의 죽음을 살피고 있다. 제1기 여성작가 김명순, 김일엽과의 연속성에서 제2기 여성작가 송계월이 비문학적 기준(외모와 사생활)으로 평가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세간에서 허구화, 서사화, 재텍스트화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성작가를 둘러싼 소문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지를 추적

6) 김수진의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논문의 성격상 송계월 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서지나 부록을 통해 송계월의 위치나 중요성이 언급된데 반해 개인적 이력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203쪽.

7) 박정애, 『어느 신여성의 경험이 말하는 것』, 『여성과사회』 14호, 2002, 180~195쪽.

하였다.⁸⁾ 송계월의 경우 향간에 떠도는 소문이 개인적 삶을 압도한 대표적인 경우로서 사후 유진오에 의해 쓰인 소설『수난의 기록』 때문에 소문은 더욱 고착화 되었다.⁹⁾ 심진경의 논문은 여류문단의 형성과 재편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문단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소문에 집중하여 한 예시로 송계월을 다루고 있기에 소문에 대한 송계월의 구체적 반응을 읽어낼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다양한 논문을 통해 송계월의 삶과 문학, 소문을 다룬 김연숙의 연구는 송계월 연구의 종합적 성격을 지닌다.¹⁰⁾ 당대의 저널리즘 공간에서 여기자와 여성문인으로서의 삶을 조망하거나, 사회주의 사상과 1930년대 초반기 여성작가의 정체성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송계월의 개인적 삶을 소설의 계급적 주체와 연결하여 그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개의 소설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기에 그 의미가 높다.

특히 신여성과 소문의 관련성, 소문화의 방식을 심도있게 살피고 소문에 대한 신여성의 개별적 반응에 집중한 연구는 본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연숙은 윤심덕, 최승희, 박인덕, 이정희, 송계월 등의 소문을 다루면서 소문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한 인물로 송계월에 주목하였다. 송계월의 소문에 대한 반박 글을 살피고 송계월 사후 동료 문인들의 소문에 대응하는 송계월의 태도를 후속하였다. 하지만 소문에 대응하였다는 사실 만을 전할 뿐 그것을 좀 더 적극적, 다각적으

8)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상허학보』 13, 2004, 277~315쪽.

_____, 『여성문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 181~201쪽.

9) 김문집은 1938년 신춘문예대관에서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어느 의미로 보든지 이 작품은 명백히 『T教授와金講師』와 『看護婦長』과를 합하여 이(二)로 제한 소산인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송계월이라는 문제의 가인의 모델적 흥미와 그를 이용함으로써 작자 자신의 영웅적 이상성을 재인식시키려는 일중 소시민적인 퐁키호테의 심산에 대한 가벼운 고소를 적출한다면 남는 것은 오직 수재의 답안용 문장 뿐이란 것이 나의 분석의 첫조목이다.” 김문집, 『『수난의 기록』과 『涇江冷』』, 『동아일보』, 1938.1.21.

10) 김연숙, 앞의 책, 374쪽.

로 의미화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그간의 선행 연구는 송계월과 소문의 관계를 ‘죽음에 이르는 병’처럼 다룬 경향이 있다. 송계월이 갖가지 억측과 소문에 시달리다 사망하였고 사후 낭만적으로 유통됨으로써 ‘죽어야 사는 여자’로 기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송계월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인 폐결핵은 휴식과 섭식(攝食), 조리(調理)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문으로 인해 신경을 긁고 조섭을 돌보지 못하였으니 병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온갖 소문에 시달리면서 자책하고 절망하였다는, 결과론적으로 죽음을 논할 때 송계월이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여기자로서, 여류문인으로서 얼마나 전투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송계월의 전체 삶과 관련하여 소문에 대응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오히려 송계월의 삶과 문학을 좀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앞선 이해를 통해 지금까지 요절로서만 축약된 송계월의 후반기 삶(개벽사 입사 이후부터 요절 때까지/1931년 4월부터 1933년 5월까지)을 좀 더 명확하고 정치하게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기생(妓生)과 투사(鬪士) 사이

사회 내의 남녀 불평등, 계급의 문제 등을 전투적으로 서사화하던 송계월의 후반기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체 없는 소문과의 싸움이었다. 일반적으로 송계월과 관련한 소문은 ‘처녀 출산’으로 알려져 있다. 잡지사의 여기자로 활약하면서 문란한 연애 생활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귀향과 맞물려 아이를 출산하러 고향에 내려갔다는 것으로 소문이 퍼진 것이다. 하지만 송계월과 소문의 악연은 잡지사 여기자 시절보다 훨씬 이전인 여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문에 대한 송계월의 반응이 훨씬 더 전투적이었던 것은 신여성의 단순한 신경과민이 아니라 이미 여학교

시절부터 소문으로 큰 고통을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송계월의 여학교 시절 소문은 ‘계월’(桂月)이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 송계월의 사후 송계월과의 인연을 다룬 윤성상의 글¹¹⁾을 보면 송계월의 본명은 따로 있었는데(‘송계옥’인 듯하다) 천한 이름을 가져야 오래 산다고 하여 이름을 계월이라고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장녀를 지극히 사랑한 어머니의 정성도 없이, 여학교 시절 내내 이름으로 놀림감이 된다. ‘계월’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향에서 ‘기생’을 하였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송계월은 함경도 북청군 신창면에서 태어나 신창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15세에 서울에 대한 동경심과 향학열로 경성행을 감행하여 일가친척 하나 없는 타지에서 어렵게 경성여자상업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학교 입학 이전의 생활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송계월의 가족 사항이나 북청 시절(태어나 서울에 오기 전인 15세 때까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나 ‘고향’이나 ‘가족’과 관련하여 쓰인 수필에 보면 고향에서의 유년시절은 다복한 가정의 행복한 기억으로 추억된다.¹²⁾ 또한 “어려서 아버지(송치옥)의 영향으로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독서와 문예방면에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송계월의 유년 시절의 경험은 여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의 불의와 맞닥뜨렸을 때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고향에서의 경험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던 계월에게 ‘함경도 기생’이었다는 소문은 큰 충격과 울분을 갖게 만들었다.

송계월은 1928년 4월 여상 2학년 때 한국인 교사로서 당시 교무주임이었던 신상철(申尙澈)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파면된 것에 항의하여 맹휴를 주도하게 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국인 교원의 부당 해임으로, 교장에

11) 윤성상, 『그 길이 그렇게 바뻐소』, 『신여성』 7권 7호, 1933.7, 94쪽.

12) 송계월은 1911년 12월 10일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에서 부 송치옥과 모 이순희의 장녀로 태어났다. 송계월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학생 만세운동 당시 신문조서를 보면 부모와 형제자매 등 8명의 가족이 북청에서 전답을 소작시켜 그 수입에 의해 중류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게 복직을 건의한 것이 거절당하자 동맹휴학을 결의한 것인데 이것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서 검사국에 업무 방해죄, 상해죄로 구속된다.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가 폭력사태로 이어진 데는 송계월의 소문과 연관이 있다.

당시 맹휴 반대생이 맹휴생 송계월이 ‘흰 저고리와 흰 치마를 입고 온 것을 보고’ (기생이라) 조롱함으로써 맹휴 반대생과 맹휴생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기생이란 조롱에 분이 난 송계월은 싸움에 휘말렸고 결국 수업 방해와 상해죄로 구속된다. 이 사건으로 송계월은 서대문 형무소에 9일간 구류되었다가 기소 유예의 처분으로 석방되고 이후 경찰의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된다.¹³⁾

송계월이 여학교 시절 내내 ‘기생’이라는 소문에 시달렸음은 공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에 일어난 서울 여학생 만세운동 당시 표면적 주동자로 검거된 송계월의 신문조서에 보면 총독부 이등(伊藤) 검사가 송계월에게 1928년의 동맹휴학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학교 생도들은 모두 그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자 송계월은 “동맹휴학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었으므로 모두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검사는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문(이등 검사) 그대는 이전에 기생을 한 일이 있었는가.

답(송계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나의 이름이 桂月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고찰되지만 나는 향리의 보통학교에서 六년을 다녔고, 그리고 곧바로 상경하여 현재의 여자상업에 입학하였으므로 기생이나 무엇인가 될 틈도 없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몹시 서운하다.¹⁴⁾

13) 당시 맹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매일신보』, 1928.5.7~12, 『동아일보』, 1928.5.12~23일자를 참조.

1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51』, 국사편찬위원회, 2002, 511쪽.

총독부 검사가 서울 여학생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 성격, 취지를 심문하는 가운데 기생의 이력을 질문하는 것, 그리고 여학교 생도들은 모두 그대를 기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송계월이 여학교 시절 내내 ‘기생’ 소문으로 시달렸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 큰 고통을 받았음을 유추하게 한다.

송계월은 여상 시절 3번의 맹휴를 주도(교장의 친인척 교사 채용, 교사의 부당 해임, 학교 설비 미비)하였고 이로 인해 서대문 형무소에 2번이나 구류된다. 신여성 문화 운동의 전범(典範)이었던 서울 여학생 만세운동 당시 자신의 하숙집을 만세운동을 도모하기 위한 회합의 장소로 제공하였고(송계월의 하숙터는 현재 서울시 독립 운동의 역사 현장으로 보존되어 있다) 경성여자상업학교의 대표로 학생들을 주동하여 격렬히 시위를 이끌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사회에서 운동가, 투사로 이름을 높였던 송계월에게 단순히 이름 때문에 ‘기생’ 이었다는 소문은 자존감의 문제에서나 투사적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여학교 시절 ‘기생’ 이었다는 소문은 이후 여기자 시절 ‘처녀 출산’이라는 소문에 대응하는 송계월의 태도를 더욱 강경하고 전투적으로 만드는 앞선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4. 추문의 데마고기(Demagogy)화, 평론의 정치학

4.1. 익명에서 실명으로, 데마고그(Demagogue)의 책임

개벽사에서 발간한 『신여성』은 근대 잡지사에서 상업 여성지의 첫출발이자 신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풍속과 담론의 재현물이었다. 송계월은 1931년 『신여성』이 복간된 뒤 잡지의 재건과 흥행을 위해 개벽사에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인물이었으며, 그 문명(文名)으로 개벽사에서 발간하는 4개의 잡지(『혜성』, 『별건곤』, 『신여성』, 『어린이』)를 넘나들며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특히 『신여성』에서는 기자, 작가, 편집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송계월 입사 후 이전보다 여성주의적 기사나 문예가 훨씬 더 강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엄청난 양의 문학적, 사회적 글쓰기는 문학에 대한 높은 열정과 사회적 문제를 공적 글쓰기를 통해 쟁점화하고자 했던 송계월의 치열한 문제의식의 결과였다. 여류문인과 여기자로서 활약하는 중에도 모교(경성여자상업학교)에서 맹휴 사건이 일어나자 졸업생 대표의 자격으로 학교장과 교섭을 벌이고 인터뷰를 통해 사회에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운동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검거되기도 하였다. 송계월은 글로써 행동으로써 신념을 실천한 가장 신여성다운 ‘신여성’이었다.

1932년 2월 조섭을 돌보지 않고 원고지를 들고 동분서주하던 송계월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여동생과 친구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고 돌아오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계월은 끝끝내 고집을 피웠다. 결국 여학생 만세운동 때 감옥에서 얻은 위병과 폐렴이 겹쳐져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받고 폐결핵을 진단받자 고향으로 요양을 떠난다. 이러한 와중에도 『신동아』에 여기자 인터뷰, 여학교 졸업생 기사(『신여성』), 평론, 수필 2편, 처녀작 『가두연락의 첫날』을 『삼천리』에 발표하여 문단에 관심을 받게 된다. 1932년 5월 요양 차 신창에 내려와 있던 송계월은 자신에 관한 어처구니없는 악선전을 듣게 된다.¹⁵⁾

이러케오래동안 病床에누어잇노라니 나의귀에는 들을소리 못들을소리
별별짓지안은풍설이다-들려오군한다. 그중에도 나의극도로에민하여진 신경
을더-극도의극도로 흥분식히는것은 S某라는사람의행동이다. 그사람은 나
에게대한 허무한惡宣傳을어셔한出版會에서卑劣하게街頭演說이나하듯이

15)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송계월이 자신과 관련한 소문을 처음 듣게 되는 때가 신창에서 경성으로 돌아온 후인 1932년 9월 말로 되어있다. 잡지 『신여성』의 원고 청탁 차 들른 곳에서 소문을 처음 듣게 되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송계월은 1932년 5월 초 요양 차 내려와 있던 고향에서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무엇을지절대였다고한다. 나는過去에있서 그사람에게물논아무 감정바들행
 동을한일도없다. 또한 말의主人公S某가 어셔한人物이라는것은 겨우알고있
 스나 어셔게소락선이가생기였는지도 물론모르는것이다. 다-만그人物이 푸
 로레타리아를云云하는사람이라는것은 썩르新聞紙上을통하여아는것이다.
 이러케 사이가먼그가 어셔한理由로써 나에게그러한卑劣한行動을한것인가?16)

송계월은 소문을 듣고 극도로 흥분하지만 곧이어 과거 소문에 시달린
 경험이 좋은 가르침이 되었듯,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 자
 신에 관해 악선전과 허무한 연설을 하는 무리가 많아지더라도 “그들의생
 각과가티 쉬-씨부러지지안으리라고… 나는 굳게돌진하련다. 아니죽을힘
 을다하여 나가야하겠다!”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은 여러 가지
 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정으로 사회에 더욱 필
 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때의 소문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
 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계월은 병이 호전되자 그해 9월 경성으로 돌아와 개벽사에 복귀하여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잡지사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도중에도
 여기저기서 자신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다. 그러던 중 이갑기가 『여인』
 가십난에 ‘S처녀의 옥동자 운운하며 아기 아버지가 어디에도 있고 어디
 에도 있다는’ 기사를 실은 것을 알게 된다. 송계월은 이 기사를 보고 잡지
 사로 쫓아갔으나 이갑기는 이미 시골로 내려가고 없었고, “이번 가십난에
 쓴 글은 여류문인 C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인데 사실이 아닌 듯하니 취
 소하여야.”17)라는 엽서만 던져져 있었다. 하지만 잡지는 이미 발행된 뒤
 였기에 취소는 불가하였다.

한차례로 소문에 휘둘린 계월에게 두 번째 소문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
 다. 더욱이 민족주의 운동을 하던 중 얻게 된 질병으로 요양 차 귀향한
 사건이 처녀 임신과 출산이라는 추문으로 되돌아왔을 때의 충격이란 실

16) 송계월, 『병상의 편상-북국 어촌에서』, 『신여성』 6권 6호, 1932.6, 97쪽.

17) 사우춘, 『거리의 굴뚝새! 풍문제조업자』, 『신여성』 6권 12호, 1932.12, 40~46쪽.

로 대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송계월은 추문에 웅크리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실체 없는 정체불명의 소문을 공론화한 것을 ‘데마고기’(Demagogy)로 규정짓고 「데마에 항(抗)하여」(『신여성』),¹⁸⁾ 「역선전에 대한 일언」(『제일선』)¹⁹⁾을 연속해서 발표하여 공론화된 소문에 적극적으로 비평적으로 대응한다.

일찍이 신여성은 자신의 소문에 관한 개인적 항변으로 고백장이나 공개장 등을 발표하였다.²⁰⁾ 내면을 발화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당대의 여성에 반해 신여성은 고백장이나 공개장을 통해 소문의 그릇됨과 행위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적극적인 자기 항변의 모습을 보여준다. 송계월은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평론을 통해 소문에 반박한다. 송계월은 이갑기의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갑기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추악함을 가치론적으로 평가한다. 송계월의 반박 글은 평론을 형태를 취함으로써 주관적 변명이 아닌 논리적이고 비평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송계월이 『신여성』을 통해 발표한 평론의 핵심은 소문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적 목적을 지닌 데마고기라는 점과 데마고기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데마고그(Demagogue)²¹⁾의 실명을 밝힌 것이다. 데마고기는 특정한 집단, 세력 또는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에 관하여 대중 사이에 유포시키는 소문의 일종으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인 허

18) 송계월, 「데마에 항하여」, 『신여성』 6권 11호, 1932.11, 44~46쪽.

19) 송계월, 「역선전에 대한 일언」, 『제일선』 2권 10호, 1932.11, 29쪽.

20) 나혜석, 「이혼고백장」, 『삼천리』, 1934.8, 84~96쪽.

이정희, 「이성용 박사의 약혼 해소기-식그러운 신변에 대한 나의 공개장」, 『신여성』 7권 9호, 1933.9, 86~88쪽.

21) 데마고그는 이익을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감정적, 정서적으로 대중을 기만하여 선동하는 연설가를 말한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선 민중 지도자를 가리켰으며 오늘날과 같은 비난의 뜻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각 개인의 가치 체계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대중사회에서는 대중의 감정과 편견에 호소하여 권력을 취하려는 정치가를 의미하게 되었고 데마고그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선전이나 인신공격을 뜻한다. 사실의 왜곡(歪曲)과 중상(中傷)을 포함하는 선동적 의도성이 강하다. 데마고기는 일반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한편, 가공적인 인과 관계의 상정이나 사실의 왜곡을 교묘한 언어로써 보충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쉽게 널리 퍼져나간다.²²⁾

가두(街頭)의 불량 청년이 길가의 여자들에게 ‘히야까시’(희롱)하고 우쭐해 하며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문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소위 문단에서 자행될 때 ‘여류문인’ ‘여기자’로서 대표성을 갖는 여성에게는 데마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부르주아 문사가 아닌 프롤레타리아를 부르짖는 프로문사가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실에 송계월은 더욱더 증오를 느끼고 맹공을 퍼붓는다.

송계월이 지목한 파렴치한(破廉恥漢) 데마고그는 이갑기이다. 이갑기가 누구인가. 송계월의 당시 생활이 좌익 전선에 접근해 가고 있던 때, 가입하기를 소원했던 카프의 맹원이자 여러 논쟁에 참여하여 카프를 대변한 대표 비평가였다. 이러한 인물이 고작 잡지의 가십난에 떠도는 뜬소문을 마치 실화인양 옮겨 적고 세간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고 잡지 발행 이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서신으로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송계월은 이갑기는 더 이상 카프의 멤버이자 동료가 아니라 ‘구두 끝에 먼지’, ‘일개 여성의 앞잡이’, ‘주책없는 행동을 일삼는’ 불량 청년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나의말에對하야 李甲基君은 다음과가티 辨明하리라. 「우에편지를보라! 나는 個人의意思로그리한것이아니라 崔××의말에依하야쓴것이라, 고. 그러나君이 그러케 辨明은헛댓자, 崔××와結託하야 그런不良雜文을썼다는것은 그리名譽스러운일도아닐것ियो 그리자랑겨꺼리가 되는것도아닐것이다. 結局은 일개녀성의 「手さき」가되여서 주책업는행동을한테지나지안는것이다.²³⁾

22) 조향래, 「구제역 데마고기」, 『매일신문』, 2011.1.6.

23) 송계월, 「데마에 항하야」, 45쪽.

위의 글을 보면 이갑기 외에 한 명의 데마고그가 더 등장한다. 놀라운 점은 데마가 동료 여류문인 최××의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갑기가 지목한 최××, C여사는 제2기 여성작가를 대표하는 ‘최정희’이다. 최정희는 세월의 절친한 친구였다. 송계월과 최정희는 당대를 대표하는 여류문인이자 여기자였기에 함께하는 자리가 많았으며 사상적 동질성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두 인물이 소문의 발화점이자 공론화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낀 세월은 데마를 퍼트린 데마고그의 실명을 밝힘으로써 응징한다.

소문은 익명성 속에서 활성화되며 확대된 서사화를 통해 탄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소문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은 개개인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블랑쇼는 현대인의 일상적 언어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측면이 바로 익명성에서 비롯되는 무책임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소문은 이에 대한 가장 극명한 예로 사용되어진다.

명백한 화자도 명백한 청자도 없는 일상적 대화의 공간에서 말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지만 익명성에서 비롯된 이러한 무의미성은 참과 거짓의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보다 풍요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소문의 익명성은 소문의 화자-저자이면서 동시에 청자일 수 있는-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관점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저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편견과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²⁴⁾

하지만 소문은 익명성이 사라지고 생산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순간 생명력을 잃게 된다. 즉 소문의 생산자가 익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될 때 그들은 소문을 전달하는 여러 ‘입’ 중의 하나가 아니라 데마고그가 되는 것이다. 데마고그가 자극적인 변설(辯舌)로 흉악무비(凶惡無比)한 데마를 제조하는 목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막스 베버는 데마고그의 치명적 죄악으로 객관성의 결여, 책임성의 결여를 꼽

24) 이문희, 『소문의 구성과 상상의 유통』,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7~11쪽.

은 바 있다.²⁵⁾

송계월은 이 글에서 데마를 퍼뜨린 데마고그로 이갑기, 최정희를 거론하였다. 이갑기와 최정희가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데마를 퍼트렸는지는 『신여성』 12월호에 실린 사우춘의 글과 송계월 사후 아우 송정덕이 쓴 글을 통해 가늠이 가능하다.²⁶⁾

송계월 소문의 핵심적 담론은 부도덕성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그것도 아이 아버지가 여럿이라는 소문은 신여성의 비윤리성과 사회 기강 문란이라는 제도적 문제와 연관되어있다. 송계월은 이를 호사가(好事家)들의 입방정이 아니라 데마고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여 진실을 날조한 데마고기로 쟁점화 하였다. 이처럼 자신과 관련

25)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옮김, 나남, 2007, 142쪽.

26) C處子-그러나 지금은 處子이면서 아기어머니가된마돈나 아니아니 結婚하지안은 어머니-는 「사랑」으로만 얽히어진 某活動寫眞監督?과의 生活을누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수접고 거북한생각이 끼어잇섯든것이였다. 그럴때에 S處子の落郷과 거기싸른風聞! 가엽게도 그이는 자기의伴侶가 생긴것을 깃버하였다 그러나 S處子の歸京 또 風聞의掃清! 마돈나 C는 마음에서운하였다. 적은시샘이 피스줄로 사르르다름질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엇더케風聞을 좀더크게만들어서 세상의눈을 그리로쓸니게 해보려하였든것이였다. 그러기에는 자기는 確有利한立場이였고 또 환쓰가조왔다. 곳 「風聞」의複製를 斷行하였다. 玉童子를 나아가지고 나렸는데 云云한 것이였다. 그러나 가엽게도 마돈나C女の 이製造品은 굴쪽새다운 保護色이없엇섯다. 製造品은 그래도 雜誌소십欄에 실은機會까지를주었으나 자기의正體는 그대로 거기서 나타나버리지안으면 안되게되엇든것이였다(사우춘, 앞의 글, 44~45쪽).
一言으로말씀하면 腸結核으로 永眠했다고대답하지만 惡疾이再發케된原因의한條件이 崔女史의 詐마에잇다는것-勿論 根據업는詐마였슴은 天下가 肯定하였스나 元來潔白性이 豊富한 桂月언니의感情은 드디어 心勞와憤怒를지나 病的再發을誘引하였고 드디어오늘의 憤極慘劇의 죽음을본것입니다. 生存當時 數次前記崔女史의 所謂詐마의顛末을들은것이 昨今の感처럼 生然하여 나는지금 憤怒에戰慄하며 붓을웁습니다. 「그대는 自己가가지고잇다고 생각하는缺點과惡癖을列舉하여 敵手를非難하여주라. 크게憤慨하여 非難과攻擊을주라 (즈루게네푸散文詩 「處世法」의 한句節), 이것이崔女史가詐마를誕生식힌 處世法の苦衷에서였다면 나는旅次한結論을씀이當然以上の 當然이다. 「不幸히도 自己가處女로서 아이를나었스면 敵手를賣淫婦 또는雙童이를解産하였다고非難하라. 自己에게는 베-르(面紗布)가되나니 크게憤慨하여非難하라」고(외로운 아우 송정덕, 「언니를 영원의 길로 보내며」, 『신여성』 7권 7호, 1933.7, 96쪽).

한 소문이 개인적 목적과 선동을 위한 데마고기였다는 사실, 데마고기의 생산자를 실명화 하여 공론화된 소문의 재생산을 차단하고 평론의 형태로 항변하는 것은 송계월의 정치성이며, 이러한 변전(變轉)을 통해 도덕적 책임의 소재를 전환시킬 수 있었다. 송계월은 소문을 수사학이 아닌 정치학으로 쟁점화한 것이다. 이처럼 소문에 대항하는 독특한 대응방식은 송계월의 강렬한 주체성과 저항성, 결벽성을 반증한다.

4.2.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비판, 저널리즘의 윤리

소문이나 유언비어(流言蜚語), 데마고기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데마고기가 이들과 변별되는 것은 데마고기는 대중의 의식을 조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포시키는 허위정보라는 사실이다. 특히 데마고기는 매스 미디어에 의해 전달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처럼 유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송계월이 신창에서 요양 중 S모라는 사람이 출판회에서 악선전을 가두 연설하였을 때, 원고 청탁 차 들린 곳곳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도 심적인 불만을 느꼈을지언정 별다른 후속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 특히 자신이 서울로 돌아왔기 때문에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이 잡지의 가십난에 실리면서 공론화되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소문이 데마고기라는 사실, 데마고그를 실명화 하고 당대의 부르주아 저널리즘의 타락을 비판하는 평론을 발표한다.

『역선전에 대한 일언』에서 송계월은 최근 부르주아 출판물의 홍수적 출현 속에서 부르주아 저널리즘의 타락이 가속화되었다고 진단한다. 본래 부르주아 저널리즘은 속악하고 넌센스한 것이기에 이를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금일에 와서는 그 수준이 아주 끝까지 비열하고 타락되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저널리즘은 인기를 위하여 저널리즘적 양

심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각 부르주아 잡지 가십난의 대인기를 지적하였다.

원래 가십(gossip)이란 본문 기사에서 단정적으로 쓰기에는 확인이 덜 된 소문이나 개개인의 동정을 잡담하듯 자유롭게 써나간다는 점에서 집필자나 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읽을거리이다. 현실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개개인의 언동을 가벼운 필치로 전달해서 본문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것, 인물의 복잡한 기미(機微)를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가십난은 저널의 무거운 분위기에 웃음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윤향유의 역할을 하는 지면인 것이다.²⁷⁾

하지만 1930년대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잡지의 가십난은 이러한 장점을 희석시킨 채 대중들의 변태적 호기심과 선정적 흥미를 자극하는 지면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당시 잡지의 가십난은 신여성들의 일상사를 풍자, 조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 일상사는 소문에 근거하고 있었지만 가십난에 실리면서 보다 확고한 사실로 정착되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가십의 이름으로 손쉽게 만들어져 보도될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저널에서 재보도 되어 소비되었다.

선정주의와 폭로주의로 도색된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은 상업주의 언론의 생존 전략이다.²⁸⁾ 1930년대 대중 잡지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잡지들 간의 경쟁은 치열하였다. 종합 대중 잡지의 상업주의 판매 방식과 흥미 위주의 지면 구성은 본격화 되었고 잡지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성향의 일환으로 잡지가 가십난을 통해 소문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데에는 상업적 의도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²⁹⁾

27) 조용중, 「정치 가십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널리즘 비평』 9, 1993, 11~12쪽.

28) 안동근, 「인터넷 시대의 황색 저널리즘」, 『관훈저널』 78, 2001, 198~205쪽.

29) 강영걸, 정혜영, 「1930년대 대중잡지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대중」,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권 3호, 2012, 157~184쪽.

더욱더 문제적인 것은 대중 종합 잡지도 아닌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에서 황색 저널리즘의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1932년 5월에 창간된 잡지 『여인』은 사회주의 계열 잡지인 『비판』을 발행하는 비판사가 만든 잡지이다.³⁰⁾ 『비판』은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검거, 투옥된 바 있는 송봉우가 1931년 5월 창간한 잡지로 1940년 3월 26일 종간될 때까지 통권 114호로 사회주의 잡지 중 비교적 오랜 기간 발행되었다. 『비판』은 제호 그대로 좌익적 입장에서 사회 고발을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며 시종일관 비판의 길을 걸은 잡지이다.³¹⁾ 『비판』의 자매지로 성격을 이어받은 『여인』에서 “無智한 大衆의 變態的心理에 適應하기爲하야” 가십난을 통해 “사람의人身의 最惡의虛僞의데마를 駭리지아니하며 그사람의타락을도모하기 위하여 여러卑劣한 逆宣傳을 사양치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行動을 아무거리짐업시行하는 雜誌業者들에게一言한다 나는 그들에게 새삼스럽게 쁘루조야道德의良心을 要求하는바가 아니다마는 그래도 그들에게 最後의人間性이란것이남어있거든 그러한 鐵面皮의行動을 中止하라고!³²⁾

당대 가십난의 대인기를 통해 저널리즘의 타락을 살핀 송계월은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건을 성급히 보도해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저널리스트의 책임과 공정성, 정확성에 입각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함으로써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30) 잡지 여인은 사회주의 잡지 비판을 발행하던 비판사에서 만 일주년 기념사업으로 발간한 여성잡지로 1932년 5월에 창간되었다. 『여인잡지창간』, 『동아일보』, 1932.5.28.

31) 창간 권두에 “우리는 선을 설하는 독사의 본신을 밝히며 화장한 피꼬리의 정체를 드러내어 무리의 앞에 펼쳐 놓아 미고의 난타를 밝히며, 밝히는 데 극미한 도움이 나마 될까 하여 발행한다”고 적혀 있다.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57~80쪽.

32) 송계월, 『역선전에 대한 일언』, 29쪽.

5. 나오며

일반적으로 송계월은 개혁사 여기자, 여류문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 이력과 함께 미모의 여기자, 동료 문인과의 연애담, 처녀 출산, 갖가지 억측과 소문에 시달리다 요절한 것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온갖 소문에 시달리면서 자책하고 절망하였다는, 결론론적으로 죽음을 논할 때 송계월이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여기자로서, 여류문인으로서 얼마나 전투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송계월의 삶의 태도를 기저로 소문에 대응하는 양상을 고찰하여 송계월의 삶과 문학을 좀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송계월이 소문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이미 여학교 시절 ‘함경도 기생’이라는 소문에 고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사회에서 운동가, 투사로 이름을 높였던 그녀에게 단순히 이름 때문에 ‘기생’이었다는 소문은 자존감의 문제에서나 투사적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소문에 대응하는 송계월의 반박이 과도한 신경과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부터 소급되어야 할 것이다. 송계월은 오랜 시간 동안 소문에 노출되어 큰 고통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 소문에 휩싸이자 적극적인 반박과 공격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송계월은 자신과 관련한 소문을 평론의 형태로 저항한다. 일방적 소문화 과정에 대해 적극적 저항의 방식으로 ‘고백장’이나 ‘공개장’ 등이 있었다. 하지만 고백장이나 공개장은 저간의 사정을 밝히고 소문에 대해 해명함으로써 오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바라는 수준의 글이다. 송계월의 저항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문 생산의 가치, 우열, 선악을 비평의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소문의 반박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넘어 소문의 생산자인 데마고그와 상업주의적 저널리즘을 비판한다. 이는 송계월이 직업적 경험으로 데마고그가 제작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자신과 관련한 소문이 개인적 목적과 선동을 위한 데마고기였다는 사실, 데마고기의 생산자를 실명화 하여 공론화된 소문의 재생산을 차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송계월의 정치성이며, 이러한 변전(變轉)을 통해 도덕적 책임의 소재를 전환시킬 수 있었다. 소문의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공세를 벌임과 동시에 이런 소문을 가십이라는 이름으로 잡지에 실은 부르주아 저널리즘을 비판함으로써 황색 저널리즘과 소문의 생산자에게 저널리즘적 양심과 윤리적 책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소문이 대상자가 아닌 실명의 생산자(저널리즘, 유포자)에게로 되돌아감으로써 송계월은 소문을 수사학이 아닌 정치학으로 쟁점화한 것이다. 이처럼 추문에 대항하는 독특한 대응방식은 송계월의 강렬한 주체성과 저항성, 결벽성을 반증하며 그녀의 삶과 관련하여 작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야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직업전선에 나선 여성들(五)』, 『매일신보』, 1931.11.8.
- 『세상일기』, 『삼천리』 3권 11호, 1931.11.
- 『북청의 점묘』, 『삼천리』 3권 12호, 1931.12.
- 『직업여성의 술회 학원시대와 실제생활-잡지기자 송계월 양』, 『신동아』, 1932.3.
-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삼천리』 4권 3호, 1932.3.
- 『봄과 추위』, 『해성』 2권 3호, 1932.3.
- 『봄과 감옥여성』, 『신여성』 6권 4호, 1932.4.
- 『병상의 편상 - 북국 어촌에서』, 『신여성』 6권 6호, 1932.6.
- 『부인기자의 일기』, 『신동아』, 1932.11.
- 『데마에 항(抗)하야』, 『신여성』 6권 11호, 1932.11.
- 『역선전에 대한 일언』, 『제일선』 2권 10호, 1932.11.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51』, 국사편찬위원회, 2002, 511쪽.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203쪽.
-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33쪽.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옮김, 나남, 2007, 142쪽.
-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른다』, 문학과지성사, 2005, 332쪽.
- 한스 J. 노이바우어, 『소문의 역사』, 박동자·황승환 옮김, 세종서적, 2001, 13~24쪽.

논문

- 강영걸, 정혜영, 『1930년대 대중잡지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대중’』,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권 3호, 2012, 157~184쪽.
-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6, 1~242쪽.
- 김문집, 『『수난의 기록』과 『涇江冷』』, 『동아일보』, 1938.1.21.
- 박정애, 『어느 신여성의 경험이 말하는 것』, 『여성과사회』 14호, 2002, 180~195쪽.
- 배미애,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4, 2007, 151~191쪽.
- 사우춘, 『거리의 굴뚝새! 풍문제조업자』, 『신여성』 6권 12호, 1932.12, 40~46쪽.
- 손혜민, 『‘소문’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신여성’의 기표-나해석의 단편 「경희」를 중심으로』, 『사이』 7, 2009, 141~168쪽.
- 송정덕, 『언니를 영원의 길로 보내며』, 『신여성』 7권 7호, 1933.7, 95~99쪽.
-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상허학보』 13, 2004, 277~315쪽.
- _____, 『여성문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 181~201쪽.

- 안동근, 「인터넷 시대의 황색 저널리즘」, 『관훈저널』 78, 2001, 198~205쪽.
- 윤성상, 「그 길이 그렇게 바뻐소」, 『신여성』 7권 7호, 1933.7, 91~94쪽.
- 이문희, 「소문의 구성과 상상의 유통」,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1~97쪽.
- 이상경, 「『부인』에서 『신여성』까지」, 『신여성』, 케포이박스, 2009, 3~35쪽.
- 조용중, 「정치 가십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널리즘 비평』 9, 1993, 9~14쪽.
- 조향래, 「구제역 데마고기」, 『매일신문』, 2011.1.6.
-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30, 221~245쪽.

Abstract

Conversion a scandal to Demagogy, from rhetoric to politics

-Song, Gye-wol's confrontation method about the rumor-

Jin Sun Young

Generally, Song, Gye-wol is known a woman journalist of 'Gae-Beok' magazine and woman writer. However, with her personal background, she's been known as a good-looking woman journalist, a love story with fellow writer, an unmarried childbirth, and died young with suffering numerous conjectures and rumors. Looking at the result, suffered by numerous rumors, blamed herself, despaired, and finally she'd drove herself to the death defamed her pure heart of life that she tried to retain her life combatively and dynamically as a social worker, woman journalist, and woman writer. Considering Song, Gye-wol's responsive against a rumor based on the attitude of her life, I try to understand her life and literary work aggressively and productively, in this study.

The reason why Song, Gye-wol corresponded strongly to the rumor was she had an experience of suffering a rumor that she'd called 'Hamgyung-do Gisaeng' when she was in school. The truth that Song, Gye-wol's deal with the rumor was not a excessive neurotic symptoms should be back dated. Song, Gye-wol was revealed on the rumor for a long time and suffered torments, but when she struggled with second rumor, she controverted aggressively and offensively.

Song, Gye-wol resisted on rumors about her through a literary criticism. Thereby she handled with value of rumor's production, dominance and recessive, and good and bad in critic territory, she criticized the rumor producers, Demagogy, and commercialistic journalism over the first purpose of rumor refutation.

Both to offense about the rumor producer directly and to criticize bourgeois journalism that put a rumor on the magazine in the name of Gossip bring forward journalism conscience and moral responsibility to yellow journalism and rumor producer. That rumors justify it not to the subject but to the rumor producers(journalism, distributor) step by step means Song, Gye-wol makes an issue of rumor politically, not rhetorically. This kind distinctive correspondence to scandals disproves Song, Gye-wol's strong identity, resistant tendency, and squeamish, and it is an evidence that her literary work should be re-interpreted aggressively with her life.

Key words : Song gye wol, rumor, Demagogy, Gossip, Yellow Journalism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